주간 보험동향

2001.4.9	동향분석팀	제76호

1. 금주의 Highlight

◆ 원화 환율 급등과 정부의 외환정책

2. 금융동향

◆ 금리 : 전주대비 0.26%p 상승

◆ 환율 : 원/달러 상승, 엔/달러 하락

◆ 주가 : 전주대비 3.2% 하락

3. 보험산업 동향

◆ 대신생명, 해외매각 추진

◆ 교보생명, 자동차 단종보험사 진출 추진

◆ 금감위, 현대·삼신생명 계약이전 결정

◆ 변액보험상품 판매시기 불투명

KIDI 보험개발원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1. 금주의 Highlight : 원화 환율 급등과 정부의 외환정책

□ 엔화약세 등 대외적인 요인과 함께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세해 엔화약세기조가 진정된 이후에도 원화 환율의 급등이 지속되어 4월 첫째주 중반 달러당 1,365원에 이르렀고, 이는 1998년 10월 이후 30개월만의 최저치임.

□ 한국은행은 외환수급상 공급우위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폭을 넘어 원화환율의 가파른 급등세가 지속된 것은 시장참가자들의 불안심리에 기초한 과민반응에 주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o 무역거래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외환의 순유입기조가 이어졌으며 4월에도 이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신인도를 반영하는 잣대인 외평채 가산금리는 190bp대에서 안정을 보이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944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o 엔화 약세 및 미국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심리의 확대에 따른 투기적 달러수요도 원화의 비정상적인 약세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됨.

□ 정부는 환율상승이 물가상승, 금리상승, 주가하락 등 경제 불안 확대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통한 직접적인 개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밝힘.

- o 원화가치의 비정상적인 하락은 물가오름세 심리의 확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환차손을 걱정한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을 불러올 것임.

□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외환시장개입 정책의 효과로 주말에는 1340원대로 환율급등세가 진정되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임.

- o 원화환율 상승의 주요인이 엔화하락 등 대외적 요인에 일차적으로 있는 만큼 대외여건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부개입에는 한계가 있음.
- o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2. 금융동향

□ 금리

- 국채 금리는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외환 및 채권시장을 안정시킬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데 따른 실망감과 원화가치 급락의 영향으로 연중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말 소폭 하락. 전주대비 0.27%p 상승 .
- 회사채 금리도 전주대비 0.26%p 상승.

주요 채권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2일	3일	4일	5일	6일	전주대비
회사채	7.95	7.81	8.03	-	7.95	+0.26%p
국 채	6.66	6.46	6.70	-	6.58	+0.27%p

□ 환율

- 원화는 증시와 금리 등 내부적 악순환 강화에 아시아 통화약세 등 외부악재가 가세하며 공황심리가 확산되고 역내외 매수세가 폭증,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데 따른 실망매수세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30개월만의 최고치를 보이는 등 대폭 약세 시현.
- 엔화는 일본 여당의 긴급 경기부양대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 및 닛케이주가 상승, 최근 급속한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개입을 암시한 일본 관료들의 잇단 발언 등으로 강세 시현.
- 유로화는 나스닥 등 미 주가급락세에 따른 미국경제 우려감 확산, 3개월째 감소한 3월 유로지역 경기신뢰지수 발표에 따른 ECB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강세 시현

주요 환율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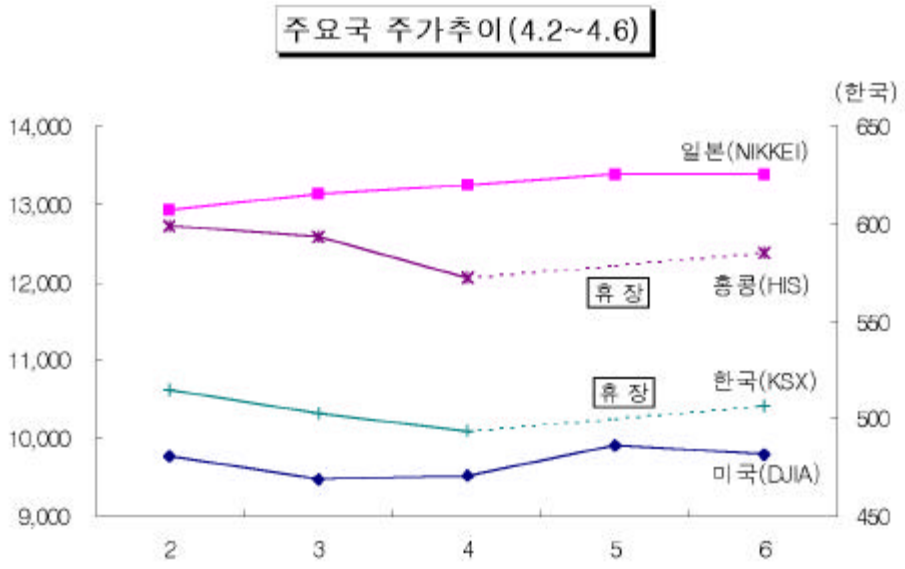
구 분	2일	3일	4일	5일	6일	전주대비
원/ 달러	1,349.00	1,343.80	1,365.20	-	1,342.10	+13.10
원/ 100엔	1,068.01	1,067.86	1,082.63	-	1,070.43	+6.38
엔/ 달러	126.70	125.59	125.31	124.07	123.82	-1.69
달러/ 유로	0.8794	0.8978	0.9011	0.8963	0.9044	+0.03

□ 주식시장

- 금주의 주식시장은 환율불안과 미국 뉴욕 양대지수의 급락이라는 뉴욕발 악재가 맞물려 투매양상이 빚어지며 주중반 28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다가 주말 소폭 반등함.
-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3.2% 하락.
-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첨단 기술주의 실적악화 경고, 美 정찰기 사고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며 불안심리가 확산, 하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델컴퓨터, 알코아의 실적호전 발표로 대형기술주와 전통 가치주들이 동반 급등하며 상승, 주말 3월 고용동향 악화 발표로 다시 경제 후퇴 우려감이 증폭되며 소폭 하락함. 전주대비 0.9% 하락.
- 일본은 3.0% 상승.
- 홍콩은 2.9% 하락.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구 분	2일	3일	4일	5일	6일	전주대비
한 국(KSX)	515.20	503.26	493.69	-	506.22	-17.00
미 국(DJIA)	9,777.93	9,485.71	9,515.42	9,918.05	9,791.09	-87.69
일본(NIKKEI)	12,937.86	13,124.47	13,242.78	13,381.38	13,383.76	+384.06
홍 콩(HIS)	12,727.30	12,584.22	12,063.71	-	12,386.61	-374.03



3. 보험산업동향

□ 대신생명, 해외매각 추진

- 지난해말 금감원으로부터 후순위 차입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해 지급여력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던 대신생명이 해외매각을 포함한 자본확충계획을 3월 31일 금감원에 제출하였음.
- 대신생명은 자본확충을 위해 해외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매각이 곤란할 경우 대신증권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다는 계획임.
- 대신생명은 우선 기존 계열사 지분의 해외매각을 위해 JP모건을 주간사로 선정해 해외에서 원매자를 찾고 있으며, 매각이 성공할 경우 경영권까지 넘긴다는 방침임.
- 현재 대신생명은 대신정보통신이 59.5%로 최대주주이며, 이밖에 대신팩토링 25.5%, 대신증권 10%, 송촌문화재단 5% 등으로 구성됨.
- 한편, 해외매각이 무산될 경우 대신증권으로부터 1,000억원가량의 현물출자를 받는다는 예정이며, 현물출자는 대신증권이 소유하고 있는 4,000억원 안팎의 부동산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짐.
- 지급여력비율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7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함.

□ 교보생명, 자동차 단종보험사 진출 추진

- 교보생명이 자동차보험시장에 단종보험사 설립을 위하여 태스크포스팀 구성하였으며, 올 하반기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초 영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음.
- 교보생명은 단종보험사 설립 후 직접 판매보다는 지난해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신설된 e비즈니스 팀을 활용, 인터넷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저가의 자동차보험상품 판매에 주력할 계획임.
-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교보생명이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입한 이후 기존 조직까지 활용해 영업을 강화할 경우 위협적인 경쟁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이와 함께 SK그룹도 신동아화재 인수를 통해 자동차보험 영업에 가세할 계획이어서 내년 자동차보험시장은 대형사들의 각축전이 될 전망임.

□ 금감위, 현대·삼신생명 계약이전 결정

- 금감위가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현대·삼신생명의 계약을 대한생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1주일간 부여하였음.
- 이미 지난달 2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부실생보사를 P&A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1주일간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대해 현대·삼신생명의 異見 제출이 없었음.
- 이와 함께 금감위가 대한생명을 포함한 전 생보사에 현대·삼신생명 계약인수 의향서를 보냈으나 대한생명만이 인수의사를 표명하였음.
-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초(4월10일)에는 현대·삼신생명이 대한생명으로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대한생명은 이미 내부인력 300여명을 선발, 계약인수단을 구성하여 사전준비작업을 끝냈음.
- 한편 금감위는 한일생명에 대해 15일 가량의 초과대출금 회수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대출금을 회수하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퇴출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방침임.

□ 변액보험상품 판매시기 불투명

- 당초 4월부터 판매될 예정이었던 변액보험상품이 상품 판매와 운용 주체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투신운용업계간 분쟁으로 금년 상반기중 판매가 어려울 전망임.
- 금감원 상품계리실의 傳言에 의하며 "변액보험 상품의 판매와 운영 주체를 놓고 보험과 투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규정에 업계의 의사를 반영한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올 상반기 도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의견임.
- 투신사 사장단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일부가 채권·주식 등에 투자되는 만큼 신탁상품에 속한다며, 상품의 판매와 운용을 분리, 투신사가 운용을 맡아야 한다고 사장단회의 의견을 금감위와 재정경제부 등에 이미 건의한 바 있음.
- 반면 보험사는 변액보험이 실적배당원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험상품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사가 운용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